

‘안전한 병원환경’ 부산고려병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부산고려병원은 1979년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개원하였고, 2005년 남구 대연동으로 이전,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으며, 2013년에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부산고려병원은 1주기 의료기관인증에 이어 2016년 12월 6~9일 까지 4일동안 2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환자안전, 직원안전, 화재안전범주 및 지속적 질 향상의 “질 향상 운영체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범주에 속하는 9개 기준은 인증을 받기위한 필수기준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전문병원으로서,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최고의 정형외과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고려병원이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사회 의료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철 이사장.

세분화된 진료특화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도로 다시찾는 병원

부산고려병원은 관절전문병원이다. 정형외과 의사와 신경외과 의사 등이 무릎, 엉덩이관절, 어깨, 발, 손, 척추 등 분야별로 세심하게 보살피주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무한경쟁 시대에 놓여있는 지금의 병원환경에서 부산고려병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선명한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시했다.

이렇듯 진료분야에서의 특화되고 세분화된 진료시스템이 있다면 수술 및 퇴원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서비스는 병원 고객지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병원간호사가 하루 2~3명의 환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환자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환자들의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김 철 이사장은 디테일한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병원서비스는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며, 항상 환자가 무엇을 불편해 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불편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챙긴다” 고 말했다.

전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산고려병원은 부산, 경남, 울산에서 유일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됐다. 급성기 환자를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외과 관절전문병원인 부산고려병원은 지난해 9월 1개 병동 56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 한데 이어 12월 1개 병동을 추가했으며, 올 들어 나머지 2개 병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전 병동, 전 병상(201병상)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김 철 이사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문제이긴 하지만 병원의 환경개선과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꼭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환자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여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대폭적인 충원과 각 병동 전동침대구비, 세면, 세발을 위한 시설을 완비하였고, 또한 전 병상 스마트시스템을 갖추고, 각 병상의 개별 TV시스템으로 독립적인 편의시설을 구축해 놓았다.

병동별 콜벨의 중앙 모니터링화, 각 병동 간이 간호스테이션을 통한 한층 더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원환자 병문안 개선 캠페인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전 직원과 비전 공유, 청사진 제시

훌륭한 비전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고려병원은 의료기술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교육과 투자,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밀착형 의료기관으로 성장과 직원들에 대한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사, 복지, 교육측면에서의 최대한의 배려를 통한 병원의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최고의 정형외과 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고려병원(이사장 김 철)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최고의 1등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욕을 아침차게 드러내고 있다.

/MP저널